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별호]

주제 101  
(2012). 4  
17  
화요일  
음력 3. 27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은 최고령도자의 연설

영웅한 조선인민군 특해공군 및 전략 로케트군 장병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군위대 대원들!

전국의 근로자들과 평양시민여러분! 남녘의 겨레와 해외동포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군력사에 전례없는 오늘의 열병식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사회주의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마련된 승리의 대축전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도의 마음을 담아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선열들과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조국의 천리방선초소들과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올헤의 뜻깊은 명절들을 전투력강화와 혁명적대교조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인 우리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내무군장병들,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군위대 대원들과 전체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남녘동포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해주고있는 외국의 벗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동지들!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력사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 탓으로 사대와 망국을 속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이 바로 한세기전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습시다.

그러나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과관많은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습시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령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습시다.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경이적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입니다.

총대총시를 혁명의 근본으로 내세우고 최정예의 혁명강군을 건설하신 불세출의 위인들을 높이 모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선군조선의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오늘의 대축전장도 성대히 펼쳐지게 된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기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라는 철리를 밝히시고 지금으로부터 80년전 백두의 수림속에서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구한 혁명활동의 전기간 혁명무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라승하는 20세기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시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반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혁명무력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 놓으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최정예전투



대오로 강화발전시키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령전전승으로 이끄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거대한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혁명적성격이 뚜렷하고 전투적기질과 위력도 더없이 막강한 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왔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이 걸은 자랑찬 투쟁행로에는 강대한 제국주의자들과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대결전도 있었고 부강조국의 만년러전을 다지는 대건설전투도 있었습시다.

그 나날 우리 혁명무력은 참다운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제일사명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였습니다.

항일빨찌산들이 창조한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군대의 절대적인 좌우명이였으며 정신력과 전투력의 근본원천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고귀한 전통으로 되었습시다.

영광의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제일먼저 추켜들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앞장에서 견결히 수호해온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혁명앞에 쌓아올린 공적중의 공적입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전멸케 하는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의 력사는 세계의 군건설사에 전례없는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유격전과 정규전도 치르고 총포성능은 대결전을 벌리는 과정에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정예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진막강한 강군으로 자라났습시다.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시다. 오늘의 장엄한 무력시위가 이것을 명백히 확증해줄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에도 뚜렷한 자욱을 남겼습시다.

조국방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사회주의재부들에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들어있습시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긍지높고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런 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입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아로새겨온 백승의 력사가 있기에 주체조선의 영광스러운 100년사가 있는것이며 김일성민족-김정일조선의 천만년사가 확고히 담보되어있는것입니다.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나라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문수령에 서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혁명을 배운 우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결연히 분발해나서야 할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시기입니다.

며칠전에 있는 력사적인 당 제4차 대표자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군조선의 존엄을 만대에 빛내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령도따라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어도 변할수 없는 것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그대로 닮은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본태이며 로동당의 붉은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투쟁방식입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오종총77대최호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전군을 항일의 총동원정신이 깎 들어찬 오늘의 77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로선을 군사정치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고 혁명적령군체계를 더욱 든든히 확립함으로써 당과 사상도 슬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군에 백두의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진짜백기싸움군들로 든든히 준비시키며 기강이 강하고 안팎으로 멋있는 최정예혁명강군의 정규화적면모를 더욱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두리에 전군이 하나의 전우로 굳게 뭉치고 천만군이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단결은 우리 인민군대의 진짜 위력이며 바로 여기에 군력강화의 기본

열쇠가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전군이 진정한 전우가 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활짝 꽃피우며 전군이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피와 목숨을 나누는 전우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휘관과 병사는 다같은 최고사령관의 귀중한 전우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대포나 로케트를 비롯한 그 어떤 현대식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며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도 있고 최고사령관도 있는것입니다.

모든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만행과 만누이, 진정한 전우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보며 병사들을 위하여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것을 체질화하여야 합니다.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인민군대는 항일빨찌산의 전통을 이어 군민대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데서도 언제나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해주신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계속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인민군장병들은 자기 부모형제들을 위하고 자기 집들안을 꾸리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입니다.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합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는 자합정입니다.

인민군장병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위력을 계속 떨치며 대교조진군의 돌과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단 결심하고 달려들으면 단숨에 끝장을 보고야마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창조본태를 본받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는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하였습니다.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있어서 평하는 더없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합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철벽으로 수호하고 진정한 평화와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언제나 자기의 혁명적본성을 잃지 말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서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야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정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동지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진리로 뭉쳐진 조선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과 불패의 군민대단결이 있으며 당의 위업을 망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될것이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것입니다.

우리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답게,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기가 휘날릴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로 고무추동할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

##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

###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열병식에 참석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4월 15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열병식이 진행될 김일성광장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로동당과 군대, 국가를 창건하시였으며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고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광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광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일심단결》, 《결사옹위》라고 쓴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우리 당에 충실한 혁명무장력에 영광이 있오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등의 구호들과 조선로동당기, 공화국기, 최고사령관기가 광장주변건물들에 드리워져있었다.

기발계양대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었다.

초대석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항일혁명투사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영웅들, 혁명렬사유가족들, 연고자들, 풍로자들이 자리잡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제1본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대표 그리고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성원들, 주체사상세계대회,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국제축전참가자들,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주체혁명의 혁명적무장력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감이 온

광장에 굽이치는 가운데 열병종대들이 광장에 입장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격멸 소탕할수 있는 무적의 총대대로, 최첨단군사기술기재로 든든히 장비된 기계화종대들이 광장과 외당은 대통령들에 정렬해있었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주체적군건설사상과 선군령도에 의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어온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찬 행로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군력과 최첨단을 돌파한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 열의로 가슴불태우며 열병의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가 게양되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과 《김정은》, 《결사옹위》, 《조국통일》 등의 구호가 열병광장에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창공높이 날아올랐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무력기관 일군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최은복 재조선인민총련합회 의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열병부대 지휘관이 총참모장에 열병부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준비결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다는것을 보고하였다.

총참모장은 열병부대를 사열하



광장주석단에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열병식준비결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다는것을 보고하였다.

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을 축하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총참모장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것을 보고하였다.

열병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의 연설은 격정에 넘친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로 하여 여러차례 중단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연설을 끝마치시자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천만군민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철세의 위인께 다함없는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열병행진이 개시되었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의 노래가 주악되는 가

수너부절사옹위의 총폭탄대로, 제 일결사대로 역세계 자라난 백두산 혁명강군의 백철불굴의 기상이 솟음쳤다.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강위력한 민방위 무력으로 자라난 로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종대들과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혁명전통을 곳곳이 이어가는 선군혁명계승자들의 대오인 혁명학원종대들이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행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주석단앞을 지나 열병대오들에 답례를 보내시었다.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단결의 중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결사옹위하는 성세, 방패가 될 억척불변의 신념과

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조선로동당기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 군기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섰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초상기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종대와 조국해방전쟁시기종대에 이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김정숙해군대학, 김철주포병종합군관학교, 강진종합군관학교 등 조선인민군 각종 군사학교종대들과 근위 서울류경주 제105방사단, 근위 서울김책제4보병사단, 근위 강진제2보병사단, 근위 제2여사령관을 비롯한 례해공군부대종대들 그리고 조선인민군무공종대들이 군악에 맞추어 보무당당히 나아갔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사회주의조국수호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자랑찬 영웅사사를 수놓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자랑높은 군기들을 앞세우고 광장을 행진해가는 열병대오마다에는 혁명의

영광이 넘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경축 4.15》, 《강성대국》, 《조국통일》, 《군민대단결》 등의 글발들과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편이 펼쳐졌다.

열병식이 끝나자 환영곡이 울리며 우리와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에게 따뜻하고 전투적인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열병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인민군장병들과 평양시민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천만군민의 혁명적기파와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 래양절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뜻깊은 래양절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탁월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및 내각, 사회단체일군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립상 양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례해공군 및 로농적위대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례해공군 및 로농적위대명예위병대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땀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기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





#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개관식 성대히 진행



# 축포야회 《태양조선은 무궁번영하리라!》 성대히 진행





#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경축 대공연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성대히 진행

태양조선의 영원한 4월을 노래하며 절세의 위인찬가가 온 누리를 진감하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경축 대공연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가 16일 평양체육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날 조선의 영광, 민족의 대행운이 얼마나 큰가를 숭엄하게 새겨주며 서장 합창과 무용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1장 《절세의 예국자》에서 관현악과 남성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시향가》는 항일전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이 노래를 사랑하고 즐겨부르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에 대한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출연자들은 여성독창과 합창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첼로제주와 방창 《문경고개》, 합창 《김일성수께 드리는 노래》 등의 종목들에서 태양의 존함으로 이 땅에 광명을 안아오시며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

고 강성부흥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예국자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주체의 광휘로운 빛말로 파란많은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중지부를 찍으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 세우신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대성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빛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2장 《수령님 한품속에》가 무대에 펼쳐졌다. 천만년 흘러도 잊지 못할 크나큰 사랑을 전하며 출연자들은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여성독창과 무용 《철의 도시 밤하늘에 붉은 눈이 내리네》, 가야금독주와 병

창과 합창 《바다의 노래》, 《모란봉》, 남성2중창과 합창 《웃음꽃이 만발했네》, 연고자, 풍로자중창과 합창 《우리 수령님》을 감명깊게 형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 품속에 사는 끝없는 행복과 영광을 자랑하며 이민위천으로 수놓아진 아버지의 한평생을 심장으로 노래하던 인민이어서 출연자들이 부르는 송가는 더더욱 뜨겁고 절절하

었다. 인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질 때마다 장내는 열광적인 박수와 격정으로 달아올랐으며 관람자들의 가슴마다는 걸출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해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었다. 진보적인류가 열렬히 흠모하는 절세위인들을 칭송하여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3장 《은 세상이 노래하네》는 공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여성독창과 회고무대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



다.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령도 따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온 조선로동당에 끝없는 영광을 드리며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받들어 태양조선을 세계에 떨쳐갈 천만민족의 역센 의지를 보여주는 종장 혼성중창과 합창 《영광을 드리지 위대한 우리 당에》, 합창과 무용 《태양조선 세계에 떨치자》,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공연의 절정을 이루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신 선군조선의 성스러운 력사와 휘황한 미래를 장중하고도 품만한 정서가 넘치는 대서사시적인 화폭으로 펼쳐보인 대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본사기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16일 저녁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불야경을 이룬 야회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축하연설에 접한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넘쳐 모은 청년학생들로 차고넘쳐었다. 야회가 시작되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축포가 터져오르고 청년

학생들이 환희와 행복의 춤바다를 펼치었다. 주체의 위대한 태양에 대한 우리 인민과 청년학생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신뢰의 분출인듯 화려한 불보라들이 창공높이 치달아오르는 속에 꽃다발을 들고 아름다운 춤물들을 이어가는 야회참가자들이 경축광장에 대형꽃바구니를 형성하였다. 《태양절을 노래하세》, 《만경대의 노래》,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의 노래선물

에 맞추어 춤물결을 펼치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릴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과 인민이 받아안은 영광과 행복이 넘쳐나가는 고품, 저품으로 터져오른 축포들이 야회장에 밝은 빛을 뿌려 참가자들의 흥취를 더욱 높여주었다. 야회장에 《친근한

이름》, 《그이의 리상》 등의 노래선물이 울려 퍼지는 속에 청년학생들은 대를 이어 수령님, 태양복을 누려가는 긍지를 회열과 랑만의 춤물들에 담았다. 선군의 기치높이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시고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가슴 깊이 새기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찌산식이다》, 《선군리리》의 흥겨운 장단에 맞추어 열정적으로 춤

을 추었다. 위대한 수령님 과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리상이 꽃피어나는 태양조선의 모습을 구가하는 《은 나라의 대경사로세》, 《돌파하라 최철단들》, 《강성부흥아리랑》의 종목들은 야회참가자들의 원무를 더욱 즐겁게 하였다. 대동강을 오가는 유람선과 물결 위에서 눈부신 꽃축도가 현숙 터져오르고 무대중심에서 장고춤과 다채로운 교예종목들이 펼쳐졌다. 야회참가자들은 《곧바

로》, 《내가 지켜선 조국》, 《당을 따라 청춘들이 앞으로》의 노래에 맞추어 이 땅위에 청년중시정치를 펼치신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서의 영예를 떨쳐가는 청년전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펼쳐보였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시어 청년들의 앞날은 더 밝고 창창할것이라는 확신이 야회장에 넘쳐났다. 해외동포들, 외국손님들도 환희의 춤물결이 끝없이 일렁이는 야회장에 뛰어들었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발걸음》의 노래선물에 참가자를 맞추어나가는 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

예를 남김없이 펼쳐갈 볼라는 맹세에 총만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진행된 청년학생들의 야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천만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태양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청년전위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